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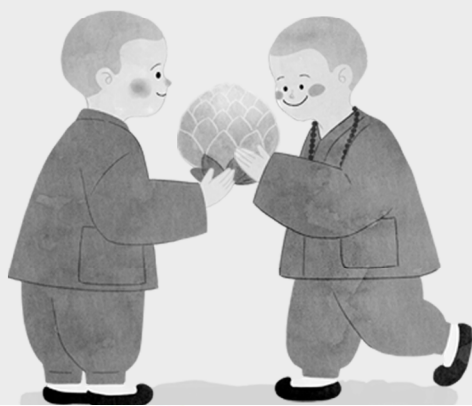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1주차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

조은수 교수



dongguk
UNIVERSITY



| K학술확산연구소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1-1 강좌소개

1-2 불교 경전 속 여러 여성에 대한 시각

1-3 다양한 자료, 다양한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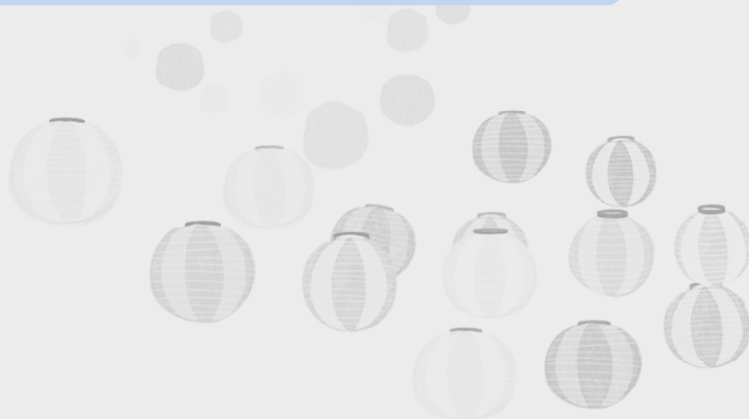
1-4 붓다의 뛰어난 여성 제자들

1-5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

1-6 대승불교 경전에 보이는 여성

III	퀴 즈	24
-----	-----------	----

IV	참고문헌	26
----	------------	----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I. 학습안내

1

강의개요

한국 불교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문헌, 역사,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또한 한국불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도의 초기불교 경전 속에 나타나는 여성 관, 중국 역사 속의 여성의 활동, 그리고 현대 세계 각국의 불교 여성의 현황에 대해서 공부한다.

2

학습목표

여성의 관점으로 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불교 설립의 기본 정신인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알아본다. 여성의 삶과 그에 대한 기록을 고려한 불교 역사를 알게 됨으로써 불교에 대해 더욱더 풍부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
2주차	비구니 교단의 성립과 의미
3주차	세계의 불교 여성
4주차	동아시아 불교와 여성
5주차	고대 한국의 불교 수용과 여성
6주차	고려시대의 불교와 여성
7주차	조선시대 불교와 여성
8주차	불교 신여성의 등장과 근대의식
9주차	근대의 비구니
10주차	한국 현대 불교와 여성

II. 강의

1-1

강좌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수 교수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불교 속 여성이라는 대 주제 하에서 열 번에 걸쳐 불교의 역사와 문헌 속에서 나타난 여성과 관련한 담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주의 강의를 통해 불교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떤지, 또는 여성관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인도 불교에서 시작해서 한국 불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불교에서 시작하여 경전 속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한국의 고종세기와 근현대기의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1주 강의에서는 총론을 펼칩니다. 각종 불교 경전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성관을 살펴봅니다.

2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창시자인 붓다의 여성관과 초기 불교의 여성출가자, 즉 비구니라고 하는데요. 그 비구니 교단이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3주에는 초점을 바꾸어서 현대의 불교와 여성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 보면서 현재 학계에서 문제와 관심거리가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 4주에는 현재 세계 각국의 불교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각국의 여성의 지위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제 5주부터는 동아시아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그 속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5주부터는 한국으로 넘어가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살피고, 또한 그 자료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활동을 살펴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주에서는 근현대에 나타난 걸출한 여성 인물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강의는 문헌, 역사, 사람. 그 3가지를 주제로 해서 펼쳐는 일련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1-2

불교 경전 속 여러 여성에 대한 시각

그럼 오늘 제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전 속에 나타난 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불교 경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여성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불교와 여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종교와 여성은 무척 가까운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측면에서 보아도 종교 신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좀 멀리 가서 한국 조선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가혹한 불교 억압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전통을 지켜서 시대가 바뀌어 근대가 되었을 때 불교가 다시 등장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별 간의 불평등이 첨예하게 나타난 것이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도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신이나 사제는 남성이지만 추종자와 신도는 여성이며, 남성들이 지도적 위치를 갖는 것에 비해 여성들은 수동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의 교단과 같은 내부적이고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곳에서 여성의 지위는 언제나 주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학자 미국의 앤 브로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은 자신의 논문 속에서 ‘미국의 종교사는 여성의 역사이다’ 라면서 미국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여성을 빼놓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종교 행위에 있어서 그 참가자의 주를 이루는 것은 언제나 여성이었다는 점.

둘째, 같은 시대에 대한 역사도 남성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과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주장은 지금까지 남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정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했다면, 그것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보다 의미심장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역사를 남성의 역사로만 보아 온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의 역사나 문헌 속에 등장하는 이론 또는 인물은 거의 남성에게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의 현장, 예를 들어 불교의 경우 사찰에 가보면 대다수의 신도가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지구상 어떤 종교보다도 여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불교사나 불교 연구는 남성의 자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그런데 선구적인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들은 그동안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보이지 않던 많은 여성들과 그들의 활동과 역할이 드러났고, 나아가 결국은 그들의 삶과 수행을 통해 현재의 불교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의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이해한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알아보자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재검토의 작업을 거친 불교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교 속의 여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로 불교가 세계 종교의 대열에서 상당히 높은 여성의 지위를 자랑한다는 것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 특히 다른 종교들과의 비교적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눈 뜨임이 일어난 것은 서구 사회의 민주 의식, 평등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들 자신의 종교가 가진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신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웃 종교인 불교의 종교관과 그 문화가 가지는 평등성에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때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사제로서 인정을 받고 신도들을 지도했으며 또한 스스로 수행하여 불교에서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경전과 율장에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사제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의 경우 비구스님, 남자스님을 말하는 거죠. 비구니스님, 여자 스님. 그 두 양성의 사제가 존재하며, 그들의 위치는 거의 동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19세기 팔리어로 된 초기 불교경전을 연구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현재의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양성 평등적인 종교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한 아이러니컬하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교의 모든 모습이 양성 평등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제도 등에서도 성 불평등한 측면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창시자 붓다와 초기불교 경전에서 보이는 평등성 또는 선진성에 비해, 이후 불교의 전파를 따라 아시아의 각국에서 형성된 교 7단 또는 신도 조직 등에서 불교는 그리 평등한 문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초기 불전에 많은 선구적 여성들의 자취가 나타나고 교리 자체는 어떤 종교보다도 선진적인 것인데 비해서 여성에 대한 각종 편견을 담은 담론과 문헌이 아직도 불교계에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 특히 아시아 불교계의 권위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모순 또는 괴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자극받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이러한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해서, 미국의 불교학자인 알란 스폰버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서 이것을 soteriological inclusiveness라고 얘기했습니다. include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교단의 운영이나 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남성 중심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institutional androcentris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패라다임은 아주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고전적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교리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측면에서는 양성 평등적이나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론의 격으로 불교에서 여성연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제의식을 두고 불교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불교에는 그런 성평등한 측면.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불평등한 측면, 즉 부정적인 측면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괴리 현상을 살피면서 왜 그런 괴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불교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불교를 더 균형 있게 잘 알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부터는 그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다양한 자료, 다양한 목소리

경전 속에 나타난 여성을 나타내야 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여성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초기 경전의 자료를 살펴보는데요.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의 기록은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불교경전에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록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교경전은 거의 3천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편찬되어 왔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은 간과해 버리는 태도는 지양하고,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불교의 양성평등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초기불교 시대, 즉 부처님 당시에 형성된 경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불교계와 여성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대승불교까지 다양한 입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발전단계는 흔히 초기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의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초기 불교란 붓다와 그의 직계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100~200년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비달마 불교는 그 이후에 나타난 초기불교의 문헌에 대한 학문적 연찬, 학문적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담은 경전들이 만들어진 것에서 비롯합니다. 초기불교보다 5세기 정도의 후대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에 따라 새로운 대승을 지향하는 종교 이념과 표현이 경전 불상 등을 통해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초기불교의 목적은 번뇌를 끄는 것입니다. 번뇌의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붓다가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가르침을 준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고집멸도의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가 있고 그것의 원인 집이 있고 그것의 소멸, 멸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이 4가지를 얘기한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문제의 원인과 그것의 해결을 거기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 사상을 설파하는 경전의 저자들은 이런 것을 소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수레라는 뜻인데요. 즉 중생들을 차안에서, 이 세계에서 피안, 저 열반의 세계에서 데려간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람들, 중생구원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바라밀이라고 하였습니다. 파라미타, 피안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여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절에 가시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수행해서 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에 대해서 남성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구분을 짓는 언급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기 경전으로 갈수록 성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는가’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그 질문의 시작은,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데바닷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동생인데, 부처님에 대한 시기심 등 여러 가지 교단에 대한 불만에서 부처님을 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한 데바닷타도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경전에 처음 나옵니다.

그랬을 때 데바닷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성불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몇 종의 사람들은 성불할 수 없다는 답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도 하나의 대상이 되어서, 그러면 ‘여성도 정말 성불할 수 있나?’ 하는 식의 질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불의 문제를 지금 누가 우리에게 ‘여성은 성불할 수 있나요?’ 라고 현대사회에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말하겠죠. ‘왜 여성이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물어볼까? 왜 그런 질문이 성립하지?’ ‘또 사람이면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부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깨달았는데,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이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다시 옆으로 돌아가서 ‘정말 여자도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되겠지. 그렇지만 여자는, 글썄. 나도 모르겠다. 부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성성불의 문제라고 해서 학자들이 아주 깊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깨달음, 성불, 즉 붓다를 이룬다는 것은 붓다가 된다는 뜻인데요. 붓다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렇지만 후대로 갈수록, 특히 대승불교 경전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단’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런 저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다는 여성 성불에 관한 이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의 문제를 가지고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주차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서구의 학자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정도로 지금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불교 문헌에는 여성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80세에 돌아가시기까지 45년의 긴 여정의 시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펼칩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거기에서 나타난 많은 이야기 속에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붓다의 교설을 모은 니카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구, 비구니의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모아놓은 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리가타’라는 문헌입니다.

첫 번째, 니카야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불교의 문헌을 통틀어서 삼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3가지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그 속에 경, 율, 론의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초기 불교 시기에는 두 가지, 즉 경과 율만 성립하는 것이죠.

경은 경전이라는 뜻이고 율은 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외워서 암송하는 oral tradition으로 오래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B.C 1세기경에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지게 되고, 거기에서 스리랑카의 당시 언어였던 팔리어로 최초로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팔리어는 인도 본토에서 쓰였던 산스크리트어의 방언격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모인 경전을 ‘니카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리경전에 니카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중국에 불교가 전해져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함경’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작은 경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니카야도 그렇습니다. 둘째로 율장이 있는데요. 율장, Vinaya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장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갔던 비구와 비구니들의 생활 규칙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붓다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바라나시 쪽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예전에 같이 고행 수행을 했던 다섯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져서 다시 만난 그 친구들을 시작으로 처음 법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초전법륜이라는 것인데요. 그 이후, 점점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큰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단의 규칙을 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모임에 따라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준칙의 제정이 요청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율장의 조목들을 계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공동체 속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마다 제정하는 식으로 하나씩 점점 조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수백 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테리가타’라는 문헌은 아주 특이한 문헌입니다. 그 속에는 여성 수행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시집입니다. 아마 이런 문헌은 정말 다른 종교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테리가타’라는 것에서 우선 테리라는 것은 장노니라고 번역하는 것인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장로, 테라라고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장노니, 테리라는 여성어미를 붙여서 산스크리트어에서 말합니다.

가타라는 것은 노래, 계송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테리가타 안에는 장로 비구니 또는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장노니라는 분들이 지은 게송 73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 출가 수행자들의 굉장히 영웅적인 목소리가 들어 있는데요. 그들의 수행담,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주제는 주로 자신의 현재 상태, 그리고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느끼는 영적인 자유, 또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테리가타의 저자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저자의 출신 계급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두 71명의 비구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선 왕족이 23명이고 부호, 부자, 그리고 상인의 딸이 13명. 그리고 브라만 계급 출신이 18명, 그리고 그 외 다른 카스트가 4명, 그리고 피메일 엔터테이너, 유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 외의 출신을 알아낼 수 없는 사람이 11명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봐서 그 당시 여성 출가자들의 출신이 어땠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테리가타는 20세기에 영어로 번역되어서 서구 사회에 소개됨으로써 불교여성이라는 주제를 세계의 학자들의 관심 주제로 만든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불교학자인 리스 데이비스의 부인이자 그 스스로도 불교학자였던 캐롤라인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1909년에 테리가타,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Pali Text Society, PT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반해서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여성 불교학자 아이비 호너라는 분, 이샐린 호너라는 분에 의해서 이 책이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여기서 Primitive ‘원시적’ 이라고 하지 않고 초기불교라는 뜻입니다.

초기불교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1930년에 이미 이러한 여성불교에 관한 책이 영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아이비 호너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Mrs. Rhys Davids, 즉 캐롤라인 데이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 분의 제안에 의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30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지금도 꼭 같은 판형으로 출판될 정도로 불교의 여성에 대한 연구서로서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초기 불교 자료에 들어 있는 여성에 대한 교리,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 그리고 어떤 규칙을 달아서 공동체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의 생활과 수행의 양상.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팔리어 경전을 번역하던 두 여성 불교학자들이 기원전 6세기 인도 사회에서 찬숩된 이와 같은 테리가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책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마음에서 번역하고 저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분은 이후 PTS 설립에 참여하였고, 또한 많은 양의 팔리어 불전을 번역하면서 불전 속의 여성의 목소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학자들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들의 연구를 시초로 해서 인도불교의 여성 승단과 여성 수행자에 대한 기록의 연구들이 촉발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위상에 대한 많은 정보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기불교의 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4

붓다의 뛰어난 여성 제자들

앞에서 말한 초기 경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붓다의 뛰어난 여자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테리가타에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계승이 되는데요. 아주 유머러스한 점도 있습니다. 육신을 굵게 하는 세 가지. 절구통, 절굿공이, 그리고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놓여난 저는 아주 즐거웁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얽히고설킨 삶 가운데 저를 끌어들이 일 만한 것은 이제 그 뿌리조차 보이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18 계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자식,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출가해 탐욕과 분노를 떨쳤으며, 무명을 제거하고 헛된 집착을 근절한 저는 고요한 마음과 더불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붓다 당시 인도가 계급적이고 폐쇄적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면서 여성이 출가해서 자유를 향유했다는 것이 이 ‘장로니게’에 아주 생생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해탈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마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초기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성 수행자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는 글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잡아함경’에 나오는 ‘소마 숫타’ 뿐만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나타나는 분입니다.

특히 여성 수행자인 소마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 트라우마의 경험에 대한 기록은 아주 흥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숲 속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마에게 마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는 손가락 두 개만큼, 두 치만큼의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애써서 구하고 있는 그것은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마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니 마라 당신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거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나한테는, 나는 그런 혼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한테 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마라가 다가왔을 때 그런 겁에 질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렁찬 승려의 목소리를 소마내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라의 목소리는 소마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목소리를 상징하는 것 같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습니다. 소마는 그런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이겨냅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비구니들을 위한 소마의 큰 답변과 같이 들립니다. 이 소마는 다른 경전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큰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전 속에 나타나는 여성으로 또 유명한 사람으로써 키사 고타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러줘서 붓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붓다가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마을의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다가 키사 고타미는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에 나오는 분으로써 온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은 파타차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결혼하고 아이를 얻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운이 그 가족에 몰려와서 온 가족을 결국 잃고 실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체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붓다를 만나게 되어, 붓다가 어깨에 술을, 천을 덮어주는 순간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다는 경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번뇌를 떠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파타차라는 불운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초기 경전에 나오는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이별, 죽음, 아주 슬픈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픈 경험 속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승화시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지는 독특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종교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 그 트라우마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진리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흔히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고, 무상, 무아를 가리키는데요. 고가 있고,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아입니다.

이러한 삼법인의 가르침이 여성 제자들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붓다 당시에 뛰어난 비구니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한 그들의 행적이 율장이라든지 아까 본 테리가타와 같은 글 속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전 속에 이들 비구니 제자들의 행동과 수행력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마딘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법문을 잘하고 가르치는 기술이 좋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어머니, 마하프라자파티가 계신데. 이 분은 비구니 교단을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처음 만들게 된 계기를 가져오신 분이죠. 그 분의 지도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케마 비구니는 지혜가 높다. 그리고 아까 본 파타차라 비구니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경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쿤달리케사는 논변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우팔라바나는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마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담마딘나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딘나의 얘기는 팔리어로 되어 있는 니카야 Cuulavedalla Sutta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나오고, 그것을 한역한 좋아함경의 ‘법락비구니경’, 법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담마딘나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법락비구니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긴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중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을 듣고서 여기 청신사, 재가자 남성인 위사카가 나오는데요. 비구니 담마딘나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서. 오른쪽으로 돈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사카 청신사가 세존을 뵈러 갑니다. 세존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존을 뵈고, 그리고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위사카 재가 신자는 담마딘나의 대화를 모두 있는 그대로 세존께 아뢰죠.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세존께서 청신사 위사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위사카여. 담마딘나 비구니는 현자이다. 비사카여, 담마딘나 비구니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위사카여, 그대가 만일 나한테 그 뜻을 물었더라도 나 역시 담마딘나 비구니가 설명한 대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로 지녀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위사카는 마음이 흡족해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이 담마딘나 비구니의 설법 내용을 인정해 주는 대목인데. 이 자리에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있고, 또한 비구니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비구니도 이 재가자를 향해서 위촉됨이 없이 설법을 하였고, 또 부처님은 이것을 자신의 설법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인정해 주는 광경인 것입니다.

거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들어 지니는 여러 대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구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룩한 재가 여성들의 이야기도 나타나죠.

특히 그들의 행동, 덕성, 스님에 대한 공경, 교단에 대한 후원. 이런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카 부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분은 부유한 상인의 딸로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시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그 분의 신뢰를 얻어서 남편과 시아버지도 결국 불교를 믿도록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내외는 붓다에게 큰 후원을 해서 사찰을 지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리더십이 뛰어나서 초기 불교 교단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사카 부인에게 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비사카 경, 비사카 수타라는 것이 팔리어 니카야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불교는 이와 같이 신앙심 깊은 여인들, 장자들. 그런 사람들의 후원으로 인도 땅에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뚜렷한 재가 여성의 모습으로, 초기 경전의 하나인 ‘숫타니 파타’에 나오는 다니야 챗터, 다니야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다니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행복한 분 곁에서 청정한 행을 닦아 생사가 없는 피안에 이르러 괴로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치는 다니야는 아내와 함께 청정한 행을 닦아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것을 발원하고 있습니다.

부인, 즉 여성과 같이 수행하는 남편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초기불교의 각종 자료를 통해 불교가 형성될 당시의 여성들이 누구였는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 여성 제자들이 붓다에 의해서 칭찬되고 또한 그들 자신이 수행해서 높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

여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

앞에서 얘기한 긍정적 서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정적 서술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전에는 물론 여성에 대한 긍정적 기술이 대중을 이루고 있지만, 한편 여자는 집착과 탐욕이 많다. 여자의 몸은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경계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점점 짙어져서, 본격적으로 경전이 편찬되기 시작한 기원전 2 세기가 됐을 때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퇴색되고 여성은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견해가 전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여성을 수행교단의 장애물로 취급하고 탐욕과 질투심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로 묘사하는 이들 경전들의 예를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회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여성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경전으로 ‘옥야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특이하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여성을 지독하게 나쁘다, 더럽다고 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옥야는 시부모에게 소홀하다가 어떻게 개과천선해서 좋은 며느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명한 아내의 길을 가리키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전은 팔리어본은 B.C 3세기 때 성립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경전의 한문본, 번역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특히 이 경전들은 스님들이, 남성 스님들이 재가 여성들을 가르칠 때 종종 사용되는 경전입니다.

저는 어디 결혼식장에 가서 그 스님이 신부에게 이 경전을 아주 길게 읽어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옥야경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옥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시집을 와서 시댁의 화목을 깨뜨리고 시아버지 봉양에 소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시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며느리를 가르쳐 달라고 애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탁에 따라 부처님께서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옥야에게 시부모와 남편에게 공손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첫째,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에게 줘야 되고, 둘째로는 때리고 꾸짖어도 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남편을 아주 한결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을 가르치고, 네 번째는 남편이 오래, 오래 살도록 몸을 다해서 받들어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편이 없을 때는 집안을 잘 정리 정돈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 가지 경전에서 나온, 아함경에 나온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본 것처럼 옥야경이라는, 부처님보다 그 이후에 나온 경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전은 붓다 내지는 불교 교단 내지는 불교의 스님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학자들의 증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 경전은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왔죠. 그래서 거의 400년 정도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경전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B.C 2세기 내지 1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벌한 4세기 정도의 사이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은 현대의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랄 내용이지만, 다른 힌두교 경전에도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통용되는 말, 특별한 의미가 말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흥미 있는데요. 부처님은 당시 자기 제자들, 비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가 성적 욕망, 성욕이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 불교 문헌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로서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 있는 교수인 비구 아날라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본인 스스로가 승려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이 분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볼드하게, 크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여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남성의 문제인가. 그것에 먼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은 결국 남성에 대한, 남성의 문제를 역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분이 최근에 출간한 불교 비구니 교단의 성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분은 이게 남성이 가지는 두려움, 피어. 그것을 역으로 여성혐오라는 형식으로 포장해서 경전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은 문헌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초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은 같은데, 그것이 율장에 나오기도 하고 니카야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자료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비슷한 내용끼리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살펴본 결과, 사실 이 경전에서는 굉장히 지독하게 나왔지만 저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문헌학자로서 팔리오 경전만 볼 뿐만 아니라 한문 경전도 대조해서, 또한 같은 내용인데 니카야에 나오기도 하고 율장에 나오기도 하고 아함경에 나오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서로 대조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경전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본 것이 다른 경전에서 보면 다른 맥락으로 등장함으로써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자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자료를 보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그 대신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다양한 불교 경전을 살펴서 여성이 불결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한편, 초기불교 경전 속에 나타나는 깨달음을 성취한 여성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반전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한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1-6

대승불교 경전에 보이는 여성

이번 차시에서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유마경, 승만경. 이 3가지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불교의 여성관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경전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대승보살이 서원을 세울 때 자신의 국토에는 여인의 명자가 없기를 바란단든지, ‘여자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여인의 몸을 버리고 다시는 여자가 안 되겠다, 다시 받지 않는다. 또 여인의 몸을 바꾸어서 남성이 되어 성불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전에는 여성이 윤회해서 태어났을 때 아귀도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까는 지옥에 태어난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귀도에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까닭은 여인의 성품이 질투심이 많고 세상을 파괴하고 선함을 없애며 마음이 대단히 번덕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독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불교뿐만 아니고 전근대 시대에 태어났던 종교들, 기독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shortcoming, 인간의 모자란 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독하게,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것의 예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여성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애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남성들의 심리적인 고통,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초기 불교의 후대에 성립한 경전이거나 아니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기불교, 부처님의 육성에 가까운 경전일수록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긍정적인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승불교의 경우에서도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성적인 차이를 공의 입장에서 무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들은 당시 인도 사회에 만연하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화경에 나오는 ‘변성성불설’ 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이 성불하는 것은 여성의 몸으로는 가능치가 않고, 그래서 결국 남성으로 먼저 몸을 바꾸어서 부처의 몸을 가진 후에 성불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보여 준 사람은 용녀라는 여성이 되는데요. 이 용녀는 그냥 여성이 아니고 오랜 수행을 한, 아주 고도의 성취를 한 수행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제바달다’, ‘데바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닷다품'에 나오는데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용녀가 소개되기 전에 무슨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용녀는 사가라 용왕의 딸로서 나이는 여덟 살이지만, 지혜가 예리하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정과 혜를 잘 갖추고 있어서 불퇴전의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떤 보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존께서도 여러 겁에 거쳐서 아주 어렵게 고행해서 깨달음을 겨우 완성했는데, 이 여덟 살밖에 안 된 용녀가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의혹을 표명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 용녀가 홀연히 용궁에서 나와서 부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송을 읊는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 샤리푸트라가 등장합니다. 사리불은 이후에 불 유마경에도 등장하는데요. 부처님 당시의 10대 제자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 제자였죠. 샤리푸트라가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사리불이 용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의 몸은 때 묻고 더러워서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 그들은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제석, 세 번째 마왕, 네 번째 전륜성왕, 다섯째 부처님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여인으로 성불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은 믿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설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꼬집어내어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은 이것을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는 용녀가 거기 앞에 있던 지적보살과 사리불 두 사람을 향해서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지금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몸에서 바로 남자로 변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추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미묘한 법을 설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불국토가 진동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변해서 성불을 이룬다고 하는 하는 용녀변성성불에 관한 경전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양 여성, 영국 여성이죠. 그런데 티베트 불교를 좋아해서 티베트로 와서 히말라야의 깊은 설산 속 동굴에서 12년간 홀로 수행하고 나온 것으로 아주 유명한 텐진 빠모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영국의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그렇게 쇼킹한 내용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성의 몸이든 남성의 몸이든, 이 몸에서 붓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한다면요. 그런데도 왜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되어서 다시 붓다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이 여성의 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법화경에서 나타나는 이 패러다임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마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금강경이나 반야경과 마찬가지로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로 아주 초기 경전으로써 공을 얘기하는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 주인공은 유마거사라는 재가자입니다.

남자 재가자이고, 이 분이 붓다의 10대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난 옛날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 뒷부분으로 가면 관중생품이라는, 중생의 세계, 아니면 중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할까.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부정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에 집착해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챕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천녀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을 예로 들어서 공의 관점에서 이런 남녀라는 차별, 그런 구분을 떠난 평등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각이다, 깨달음의 세계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천녀는 유마거사의 방에 문병하러 여러 스님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 위에다가 꽃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천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앗 내 몸이 꽃이 붙었잖아? 왜 안 떨어지지? 꽃을 몸에 붙이고 있다니, 승려가. 여법하지 않잖아.’ 여기에 대해서 천녀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꽃이 여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님의 분별하는 마음이 여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꽃에 무슨 분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스님이 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꽃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몇 번 오갑니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당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은 괄호 속에 들어 있지만, ‘왜 여자 몸을 바꾸지 않나요? 여자 몸을 남자로 바꾸지 않나요? 왜 남자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녀가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여성의 모습’, 여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찾아봤지만 그런 것은 없던데요. 그러니 뭘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만일 어떤 마술사가 마술로 여자를 가짜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허깨비 여자한테 스님이 왜 몸을 안 바꾸시오 하고 묻는다면 말이 되는 질문일까요?’

물론 사리불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또 몇 가지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천녀가 사리불을 마술로 여자로 바꿔 버리고 자신은 사리불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사리불은 무척 당황하겠죠.

그 사리불에게 천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세요.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인가요? 사리불께서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 몸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자, 남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 몸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체의 현상에 남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천녀는 사리불을 남자로 돌려놓고 자신은 여자로 돌아갑니다.

여기 유마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 남성의 주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차별적인 인식에서 초래된 것이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 실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공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한국불교 속 여성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Women in Korean Buddhism

수냐타, empti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상세계의 다양성을 공의 눈으로 보아서 차별적으로 보는 인식을 뛰어넘으라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Ⅲ. 퀴즈

1. OX퀴즈

문제: 비샤카 (Vishakha)는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비구니 스님이다.

정답: X

설명: 비샤카는 붓다와 그의 교단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 재가여성이다.

2. OX퀴즈

문제: 『테리가타』 는 붓다의 교설을 모은 책이다

정답: X

설명: 『테리가타』 는 붓다 당시의 뛰어난 비구니(즉 장로니 長老尼)들의 계승을 모은 책이다.

3. OX퀴즈

문제: 불교경전에서 여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승려 스스로의 범계에 대한 두려움을 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설명: 경전에는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여성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 남성들과 그들의 교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OX퀴즈

문제: 『법화경』은 변성성불설이 나타나는 경전으로 유명하다.

정답: 0

설명: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주인공 용녀가 남성으로 몸을 바꾸고 부처가 된다는 내용이다.

5. OX퀴즈

문제: 『유마경(維摩經)』 「관중생품」에 나오는 사리불과 천녀의 대화는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분별 그 자체가 공(空)하고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답: 0

설명: 천녀는 사리불을 요술을 써서 여자로 바꿔버림으로써, 여성성 남성성과 같은 것이 원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고정된 실체성을 부정하는 공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IV. 참고문헌

- 이창숙,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 (인북스, 2015).
- 비키 매켄지 저, 세등 옮김,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김영사, 2003).
- 리타 그로스 저, 옥복연 역, 『불교 페미니즘: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 (동연, 2020).

